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방안 연구

이영환¹⁾

----- 목 차 -----

1. 머리말
2. 글쓰기 교육의 추세와 대응
3.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모델이 모색되는 가운데, 하나의 방법론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개요는 고사성어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중심으로 각자의 삶에 어울리는 글을 써보는 방식이다. 고사성어는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런 점에서 고사성어는 다양하고 탄탄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고 그것이 품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받아들여 자신의 글에 녹여내는 글쓰기이다.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15주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7주까지 기초 과정을 교육한다. 기

1) 세한대학교, lyh@sehan.ac.kr

초 과정은 글의 하위 단계인 어휘의 선택에서부터 문단의 구성과 글 전체의 맥락을 형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술적인 측면을 교육한다. 그 가운데에는 주제문의 형성과 목차 생성 등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퇴고의 과정을 거쳐, 어휘 선택, 띄어쓰기, 맞춤법, 호응 등의 분야에서 글을 수정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초과정을 마무리한 다음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 글쓰기 또는 글쓰기 실습이다. 이때는 자기소개서, 신변적인 에세이, 문제 해결식 글쓰기 등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실습이 이루어진다.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는 이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고안된 것이다. ‘무엇’을 쓰면서 글쓰기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 방식이 지향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도 작문의 이점을 활용하여 글쓰기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사성어를 단순히 익히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사성어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 생성 능력까지 함양된다. 둘째, 글쓰기의 기술적 측면과 함께 성찰적 글쓰기를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수요자가 자신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자유로운 에세이 쓰기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도 타당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글쓰기 분야와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목적과 소재가 분명해야 쓰기가 쉽고 좋은 글이 도출된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글쓰기와 연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강의 계획을 세우고 현실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다. 고사성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글의 대상을 설정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개별적인 면담과 글쓰기 준비 시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특히 고사성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그것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선정 시간을 넉넉히 부여한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알려진 고사성어에 선택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대중에 널리 회자되는 고사성어는 제외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보여준다. 참신한 고사성어를 탐색하는 과정 또한 글쓰기의 과정에 포함되며, 이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아이디어 생성 훈련을 할 수 있다.

고사성어가 선정되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를 통해 의견을 공유한다. 이때 모형을 제시하여 프레젠테이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발표 내용 가운데 감상 부분과 선택 동기 부분을 확대해서 글쓰기를 한다. 이때 분량과 가이드라인 및 모형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내용별로 글자 수를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 특히 고사성어의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하고, 개인의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에 둘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의 수준이 평가 기준이 됨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글이 완성되면

참사를 통해 고쳐 쓰기를 유도한다.

본 연구는 글쓰기의 방법적·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아울러 글쓰기에 담아내야 할 ‘콘텐츠’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수요자가 고사성어의 인문학적인 가치를 습득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여긴다. 아울러 글쓰기 실습 단계에서 주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 글쓰기 교육의 추세와 대응

인문학의 가치 재발견과 더불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 강좌에서도 글쓰기 분야가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문학 작품의 습작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SNS 글쓰기 요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학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대학은 글쓰기 과정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교수법과 교육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등급별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퇴고와 다시 쓰기 분야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글쓰기 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교육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대학들도 점차 늘고 있다.

그동안 글쓰기에 대한 인식은 특정 작가군이나 관련 종사자에 국한된 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이러한 경향의 최대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상 매체가 우리의 인식을 대변하면서 글쓰기 영역은 점차 줄어들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확산은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소셜 커뮤니티(social community)’는 다양한 ‘논객’을 배출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지금도 소셜 네트워킹 및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글로 남기고 있다. 누구에게나 쉽게 글 쓸 공간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으며, 그 교육에 대한 변화 또한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의 대학 작문 교육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체계에 입문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표적화되었다. 대학 교육에서는 중등 교육에서 행해지는 하향식 수업을 벗어나 학생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을 유도한다. 이때 학생은 학문 성취를 보고서나 비평문을 통해 나타낸다. 대학 작문 교육은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작문 교재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그 표지의 구성까지도 상세히 담겨있

다. 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개요의 작성과 각주의 구성 및 다양한 서술 방식에 대해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입문자들에게 매우 긴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글쓰기 수업은 이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계속 연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졸업 후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교육, 서사와 서정 문학의 표현 방법에 대한 교육까지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은 중등 과정과 차별화된 교육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문장 수정 방식 위주의 글쓰기 교육을 넘어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체계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스토리텔링’에 대한 욕구가 글쓰기에 전이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는 수요자의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인문학의 범주를 넓게 보면 글쓰기나 문장론 또한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글쓰기가 글을 잘 쓰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나 법을 배우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학적 내용을 담아내는 글쓰기를 한다면 더욱 매력 있게 된다. 그동안의 글쓰기 교육은 전공의 특성에 맞게 가능한 세분화되었고, 수요자의 관심을 글에 담아내면서 교육을 실현하려 하였다.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못지않게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으며, 글을 쓰는 방법과 기술적 차원보다 내용의 충실성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글을 쓰라고 하면 으레 손사래를 치면서 자신 없는 분야라고 사양한다. 글을 써본 경험이 빈약한 상태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만큼 한 글자를 놓고, 한 줄을 써 내려가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버겁고 두렵기까지 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는 작문의 두려움을 완화해줄 수 있다. 고사성어는 이미 잘 짜인 이야기를 품고 있다. ‘고사’는 대부분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가미한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고사가 가진 이야기의 구조를 활용하여 쉽게 새로운 이야기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다.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새옹지마’는 인생의 길흉에 따라 여러 번 굴곡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고사성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읽어나가고 그것을 분석하다 보면 이야기의 구조가 친숙해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어느덧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이야기에 호응하게 되며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오버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생이 고사성어에 제시된 내용에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지 못함을 반성하는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해석과 평가를 통해 고사성어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다. 또는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인물의 공과를 평가하여 더욱 완전한 삶이 되기 위한 전제를 보완하기도 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잘 알려진 고사성어이다. 학생들은 우공에 대한 평가에서 늘 돌로 나뉜다. 현대적 해석이 개입하기 때문이

다. 한길만 가는 경우와 그 길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후자를 선택하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우도 많다. 학생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며, 이것을 자신이 쓴 글에 결과적으로 나타낸다. 단순히 고사성어의 서사를 흉내내는 차원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글이 완성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생을 성찰할 수 있고 좌우명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 수업이 대학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런 과정은 더욱 의미 있다. 좌우명은 고개를 돌리면 책상의 양면에 새겨진 문구이다. 학생에게 인생에 대한 신조와 방향성을 물어보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고사성어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오래된 이야기가 현재까지 전해 오면서 단련된 내용과 관련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적합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3.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

3.1. 고사성어의 선정과 프레젠테이션

글을 쓰기 위해 주제를 선택하고 글감을 모으듯,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에서도 이 과정이 선행된다.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에서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고사성어의 선택이다. 좌우명으로 삼거나 깨달음을 주는 내용, 또는 반면교사가 되는 내용을 탐색한다. 무엇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언급하고 싶은 인생의 단면과 연결되도록 한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주제문 쓰기 등 글쓰기 기초 과정을 강의하면서 고사성어 선택에 대한 팁을 주며 준비 과정을 부여한다. 각자 선정한 고사성어와 선정 이유를 메모식으로 제출받은 뒤 적합성 여부를 살피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과 면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 고사성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100여 종을 정리하여 그 가운데 호기심이 가는 것을 더 찾아보도록 한다. 이때 보편적으로 회자되는 고사성어는 제외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준다. '유비무환', '대기만성과 같이 잘 알려진 것보다, 창의적인 발상을 동원하여 흔하지는 않으며, 철학적 깊이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고사성어가 선정되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한다. 발표의 형식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게 한다. '내 인생의 고사성어'라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발표 형식을 설정해주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고사성어를 찾아서 발표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것이므로, 발표 방식은 자유롭게 하더라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항목을 다

음과 같이 지정해주었다.

- ㉠ 고사성어 채택 동기
- ㉡ 고사성어의 음과 뜻
- ㉢ 고사성어의 유래
- ㉣ 고사성어와 관련된 내 인생의 한 부분
- ㉤ 자신의 감상과 가치관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갈 내용〉

이러한 틀을 만들어 두고 발표를 시작했다. 발표 시간을 약 3분 정도로 정해주었기 때문에 고사성어의 유래 부분을 자신이 공부하고 이해한 후에 요약해서 발표해야 했다. 책이나 온라인에 있는 내용을 베껴 오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고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자신의 삶에 녹여내어 글 쓸 준비를 했다.

프레젠테이션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소개하고 싶은 '고사성어'

破 壁 飛 去

깨뜨릴 파 벽벽 날비 갈거

'벽을 깨뜨리고 날아서 가다.'


'고사성어'의 유래

중국 양나라의 화가, 장승요가 금릉 안락사의 벽에 용을 그리고 여기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갑자기 그림 속의 용이 벽을 부수고 하늘로 날아올라갔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똑같은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는
'畫龍點睛 (화룡점정)'이 있음.

'고사성어'의 속 뜻

단순히 벽에 그려진 용이 실제로 벽을 깨뜨리고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출세(出世)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고사성어' 선정 이유와 감상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높이 보고 노력하자거나, 남들이 부러워 하는 출세를 하자는 뜻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에 있어서 成功 하자는 뜻으로 이 고사성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왔지만 스스로가 선택해 온 학과와 대학 강의에 회의감을 느낀 저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이 고사성어를 통해 한 번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예〉

PPT로 중요사항을 제시하고 자신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각자 선정한 고사성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의 현대적 가치와 한계를 살피고 수용할 점과 경계해야 할 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글쓰기 교육 분야에서 발표 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학생의 글이기 때문에 완성도는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또래 수준의 글이기에 공감력이 높다. 잘 쓴 글이든 부족한 글이든 서로의 글을 보면서 교육적 가치는 극대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완성된 글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조사 자료와 글쓰기 준비 과정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준비가 잘 될수록 좋은 글이 결과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고사성어 쓰기’는 프레젠테이션의 여러 부분을 바탕으로 ‘고사성어의 선정 이유와 감상 부분을 확대하여 쓰는 과정이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글쓰기 계획과 자료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자의 글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2. 글쓰기 가이드라인과 모형 제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자료 조사와 발표를 마치고, 발표한 고사성어를 바탕으로 내 인생의 고사성어 에세이 쓰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발표한 내용 가운데 오류나 누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게 하고 에세이를 쓰게 하였다. 에세이 쓰기도 발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쓰도록 하였다.

- ㉠ 글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 설정
- ㉡ 분량은 1,000자 내외로 쓸 것
- ㉢ 고사성어의 유래 및 의미는 150자를 넘기지 않을 것
- ㉣ 고사성어 부분에서 내 삶의 내용으로 넘어오며 중첩되는 문장 하나를, 이어진 문장 형식으로 쓸 것
- ㉤ 고사성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하여 참신성을 드러낼 것
- ㉥ 마지막 문장에서 장래의 포부를 나타내고 좌우명을 밝힐 것

〈글쓰기 주의사항〉

대략 이상의 여섯 항목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몇 가지를 덧붙인다.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제목 설정을 제시했다. 제목은 글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구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은 제목 설정에 주저한다. 이 사항은 비단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목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자신의 글에 제목을 직접 설정하는 것을 통해 맥락을 조망하고 제목에 걸맞은 글이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글쓰기에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은 유려한 글솜씨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제시하여 유려한 글보다는 진심이 담겨있는 글을 요구하였다. 또한 간명한 글을 쓸 것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문장의 길이가 길지 않게 쓰도록 했다. 정성이 담긴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가장 큰 기준으로 비문·오타자의 빈도를 제시하였다. 분량은 1,000자 내외로 하여, 분량을 채우는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자기소개를 비롯하여 실용적인 글에서도 주로 1,000자 내외로 주문을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기·서·결로 나타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존에 학생이 썼던 글을 샘플로 제시하였다.

제목: 한계를 넘어 성공으로, 파벽비거(破壁飛去)

‘파벽비거(破壁飛去)’를 고사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이 고사성어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 보라고 하신다면 앞서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대학 생활도 흥미가 없었으며, 더욱이 강의와 공부도 생각했던 것만큼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나온 길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길의 반추 속에서 제가 선택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한 일에 정말 정신을 집중시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모든 일 속에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했던 시기도 포함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에 나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라고 말입니다. ‘벽을 깨부수고 용이 승천한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벽을 깨부순다.’,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폭 그림 속의 용이 벽을 깨부셔야지만 비로소 승천을 할 수 있듯이 사람의 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계와 허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겨 내야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더 나아가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치기어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행복,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학생의 글 1-

프레젠테이션에 제시되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한 글이다. 학생의 글로 완벽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언급해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긴 문장을 짧게 쓸 것과 어휘의 적절한 선택에 대해서 당부해주었다. 아울러 고3부터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인생의 한 단면과 고사성어가 잘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는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으로 ‘벽’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해주었다. 자신에게 당장 직면한 ‘벽’에 대한 성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을 덧붙이고, 학생들이 보다 좋은 글로 결과물을 완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3.3. 글쓰기의 실제와 분석

학생들의 글은 한글 파일로 만들어 화면에 프로젝션 방식으로 제시한다. 함께 읽으며 잘된 점과 더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토론하게 한다. 이때 하나의 글에 두 명의 지정 토론을 붙여준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텍스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몰입도가 매우 높다. 완성된 글을 특징적인 범주로 묶어 보았다.

3.3.1.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고사성어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가장 흔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많이 아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끼나 절굿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고사[磨斧作針]라든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고사[水滴穿石]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와 같이 특정 상황을 되돌아보는 경우도 있어 눈에 띈다.

제목 : 어머니의 머리카락, 불망기본(不忘其本)

지금부터 할 얘기는 나의 학창시절 이야기이다. 특히 그 철없던 시절에 불망기본(不忘其本)의 뜻을 깨닫고 눈물 흘린 이야기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불망기본의 뜻이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그분들께 잘하지 못한 슬픔이다.

중학교 시절 조금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하는 것을 못해서 기죽어 살지는 않은 것 같다. 남들이 다 다니는 학원도 다니며, 피시방도 갔다. 휴대폰도 있었으며 굶지도 않았다. 어렸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임을 깨달았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날 혼자 키우셨다. 어머니는 늘 밤늦게 들어오시거나, 아침에 들어오면 낮 중에는 주무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좀처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나는 그런 어머니의 어려움을 몰랐다. 아니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의 탈모를 보고 말았다. TV를 보고 계셨던 어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처음에 괜찮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날 이후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화장실 수젓구멍을 막는 많은 머리카락이, 휴지통 위에 쌓여있는 검은 털 뭉치들이, 거실 바닥을 점령하는 검은 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어느 날, 혼자 머리에 약을 바르고 계시는 어머니도 보았다. 그때 눈물이 나서 방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난다.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저런 병에 걸리실까. 알아주지 못한 자신에게 화나서, 또 너무나도 고마워서 울었던 것 같다. 그 날 나는 불망기본을 느꼈었던 것 같다.

-학생의 글 2-

‘불망기본’은 어떠한 것의 근본을 잊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예기』 「단궁상」(『禮記』, 「檀弓上」, “君子曰, 樂, 樂其所生, 禮, 不忘其本. 古之人有言曰, 狐死正丘首, 仁也.”[군자가 말하기를 ‘악은 태어난 곳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예는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에 나오는 말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어는 아니다. 이 경우는 이야기가 있는 고사가 아니라 고전의 한 구절, 즉 성어(成語)를 사용하였다. 이야기가 풍부하고 그 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사성어의 이야기 구조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사성어를 사용하여,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비록 명시적으로 드러난 좌우명은 없으나,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성찰하는 글로서는 높은 완성도를 갖추었다. 이와 같은 글은 고사성어가 인생의 주제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근본’은 표면적으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이니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에다, 자기 자신의 삶에서 근원이 되는 문제로 확장할 것을 지적해주었다.

3.3.2. 미래의 계획과 다짐

자기반성이 과거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한 경우도 많았다. 학생들은 뚜렷한 좌우명이나 목표를 갖기를 원한다. 누군가 목표와 좌우명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이 설정되면 그에 맞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학습에 능률이 오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주로 미래의 꿈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좌우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을 설정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정이나 자질을 중심으로 글을 쓴 경우가 많았다.

제목 : 경찰관의 자질, 타면자건(唾面自乾)

사람은 항상 화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공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공적인 나라를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화가 많으면 그만큼 문제 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꿈은 경찰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군 입대를 의경으로 하고 왔습니다. 의경생활을 하며 배웠던 가장 마음에 새겨둔 말은 대응하지 마라였습니다. 이 말이 왜 마음에 새겨졌냐면 항상 교통단속과 시위진압을 하는 경찰·의경로서는 시민들과 대응하는 시간이 많고 그중에서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특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시위자가 좋지 않은 언행을 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하고 침까지도 뱉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하게 되면 악감정이 있는 시위자들은 더욱 흥분하고 ‘경찰이 사람 때린다’ 등 여러 가지 말로 모함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경험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대응하지 않으면 알아서 수그러들지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경찰관이 되면, 국민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앞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지니겠습니다.

-학생의 글 3-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글이다. ‘타면자건(唾面自乾)’은 『십팔사략』에 나오는 말로, 남이 나의 뺨에다 침을 뱉을 때 이를 바로 닦으면 그 사람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므로,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원래의 뜻이다. 그런데 윗글에서는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은 같이 활용하였지만, ‘처세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창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자신이 직접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관의 자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경찰관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경찰관이 된 다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썼다. 타면자건은 그렇게 흔한 고사성어가 아니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의경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잘 어울리는 고사성어를 찾아내어 연결하였다. 이러한 글을 발표하는 것은 글 쓴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 글을 보며 비평하는 학생들에게도 아이디어 생성과 참신성 증진 측면에 큰 도움이 된다.

3.3.3. 창의적 해석과 표현

고사성어는 시대를 거둬하면서 애초의 뜻과 다른 뜻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고사성어는 매우 단순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가 복잡한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사성어를 스스로 찾아서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고사성어 글쓰기 방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유도 작문의 특성상, 글쓰기를 유도하는 고사성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고사성어를 해설하거나 단순히 고사성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로서 자기 삶을 드러내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래의 글은 새롭게 해석하는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할만하다.

제목 :내가 만들어가는 의미, 목적지수(墨翟之守)

송나라의 사상이 목적이 초나라의 공수반이 운제계를 만들어 송나라를 쳐들어오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공수반을 찾아간다. 목적은 공수반에게 “북방에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가 그 사람을 죽여줄 수 있겠소?”라고 부탁한다. 공수반은 “나는 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자 목적은 왜 운제계를 만들어 죄 없는 송나라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고 묻는다. 난처해진 공수반은 목적을 초나라 왕에게 데려가는데, 목적은 왕에게 “전하, 새 수레를 가진 사람이 현 수레를 훔치려 하고, 새 옷을 가진 사람이 누더기를 훔치려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왕은 잘못된 일이라고 대답한다. 이에 목적은 “그러면 넓은 국토에 모든 것이 풍성한 초나라가 작은 송나라를 치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묻는다. 초왕이 그저 공수반이 만든 무기를 시험해 보려 했다는 핑계를 대자 목적은 그 무기가 형편 없다고 들었다며 자신이 그 무기의 공격을 막아 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모의전의 결과로 전쟁의 여부를 가름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목적의 숨겨진 의도였던 것이다. 그 결과는 9전 9승으로 목적의 승리로 끝난다. 초나라는 송나라를 공격하지 않았고, 목적은 송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된다.

이 고사성어는 대개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다. 융통성이 없고 티무니없이 주장이 강한 사람을 비판할 때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나에게 목적지수는 목적이 끝까지 성을 지켰던 것처럼 내 생각에 믿음을 가지자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의견에 끌려, 혹은 내가 가진 생각도 결국은 설득되어 후회 없이 펼쳐보지 못했었다. 그것은 내가 확신에 차지 못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확신은 하나에 대한 많은 공부와 연구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확신의 당당함은 나의 가치관을 더욱 빛나게 해 줄 것이다.

-학생의 글 4-

목적지수(墨翟之守)는, 목자가 끝까지 성을 지켰다는 뜻으로, 주로 융통성이 없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이다. 윗글은 고사에 얽힌 내용을 자신의 글 솜씨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목적이 공수반과 초왕과 대화하는 양상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목적은 성을 지키기 위해 공수반과 접촉하고, 공수반을 이용해 초왕을 만난다. 목적이 성을 지키는 과정이 매우 간결하게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쟁 없이 성을 지켜나가는 목적의 능력이 드러나게 했다.

이것은 이 고사성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가 된다. 목적지수를,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다는 긍정인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행위를 포착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윗글은 이런 점에서 고사성어에 관한 내용이 부득이 길어졌지만, 글 전체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좋은 글이 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말미에 자신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붙였는데, 신념이 흔들렸던 이유를 정확하게 간파하여 서술하였기에, 비록 짧지만

고사 분석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3.3.4. 동일한 고사성어에 대한 다른 관점

사람마다 배경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고사성어를 대하는 방식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같은 고사성어라도 다른 해석과 다양한 글쓰기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항간에 많이 회자되는 고사성어는 배제하도록 하였다. 선정된 고사성어를 연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검증받는 절차를 거쳤다. 같은 고사성어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때는 두 글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보여주기 위해 선택하도록 하였다.

‘봄밤의 순간이 천금의 가치가 있다[春宵一刻值千金]’는 고사성어는 흔히 쓰이는 것은 아닌데도, 두 학생이 이것을 선택하였다. 두 학생의 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가 매우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목 : 내일은 오늘이 있어야 존재한다.

춘소일각치천금(春宵一刻值千金) ①

어느 정도 나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게 됐을 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 온통 잿빛이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며 분명 성장한 것은 맞지만 그 시간들이 쳐다보기가 싫었다.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당시의 상실감과 아픔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쯤이었다. 하루를 마치고 해가 질 때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문득 내가 아버지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의 나, 혹은 그 시절 아파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하지만 예전에 느꼈던 상실감과 는 조금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동시에 아파하던 그 시절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중략)…

있고 있었다. 나는 지금 평생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을 지나고 있고 내가 아파했던 그 순간들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었으며, 지금 나의 하루가 어찌면 내가 평생을 그리워할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다짐했다. 이제 나의 하루가 내 평생의 추억이 되게 살자.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말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내 눈앞에 놓인 이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제목 : 매 순간을 봄밤이라 여기자

춘소일각치천금(春宵一刻值千金) ②

고학년이 된 지금은 벌써 청춘이 다 간 것만 같고, 대학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졸업을 하면 제 청춘이 끝나는 것만 같고,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이 된다는 것이 씁쓸해 요즘 들어 한숨을 많이 쉬고는 했습니다. 분명 지난 대학생활 2년을 후회 없이 보냈지만,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근래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사성어를 찾아보다가 ‘춘소일각치천금’이란 말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중략)…

제 고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청춘이 끝날까 봐 무서운 것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청춘은 남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청춘이 꼭 젊을 때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청춘이라는 것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중용을 지키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왜 제가 청춘이라는 것에 그토록 집착했는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뜻대로 보내는 것이 더욱 의미 있고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글 6-

‘춘소일각치천금’은 소식이 쓴 시의 한 구절로 고사성어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교훈적인 의미로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곤 하는데, 두 학생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다.

‘학생의 글 5’는 젊은 시절 나의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자는 메시지를 찾았고, ‘학생의 글 6’은 봄밤이라는 것은 특정 시기에 규정할 수 없고 젊음 역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를 찾았다. 즉, 전자에서는 젊은 시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데 본 고사성어를 사용하였다. 후자는 봄밤이라는 것이 규정된 특정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청춘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고사성어에 해석이 가해지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인식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을 글로 담아내면 좋은 글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고사성어와 개인의 삶을 1:1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개입됨으로써,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는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쓰인 글들은 함께 보여준다. 그리고 이어서 차이점을 묻는다. 글을 쓴 두 사람은 물론 다른 학생들도 각자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처음에는 대부분 표면적인 차이점에 집중한다. 그다음에 점차 글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원인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사고의 폭을 넓힐 기회를 제공한다.

4. 맺음말

글쓰기 교육에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론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문법의 이해와 사고하는 방법, 문장과 문단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을 습득하는 것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을 이론에 중심을 둔 기초 과정으로 이해했으며 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심화 과정을 설정하였다. 심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글을 완성하면서 글쓰기의 실제적인 면을 배운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으로 고사성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사성어가 글쓰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넘어, 사고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본론에서 소개한 고사성어의 여러 장점 가운데 친근성과 서사의 내포는, 실제 연구수업에서 매우 큰 효과를 나타냈다. 학생들은 관심 있는 고사성어를 복수로 준비하고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였다. 고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토리라인을 이해했으며 이에 의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비교적 어려움 없이 써내려갈 수 있었다.

또한 글쓰기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면서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좌우명과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다. 문장 작법을 배운다는 형식적인 면에서의 목적에 더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교육적 효과가 배가되었던 듯하다. 막연하게 그리고 있던 생각들을 고사성어라는 촉매를 통해 글로 구체화하면서 글쓰기의 본질과 효용성을 체득하게 할 수 있었다.

글을 쓰기 전에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발표하는 준비 단계를 두었다. 실제 글쓰기에 돌입해서는, 가이드라인과 모형을 제시하여 글쓰기에 대한 낯섬을 완화해주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각자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글을 작성했다. 그 가운데 고사성어를 통해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유형이 많았다. 아무래도 고사성어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런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를 설계하고 다짐하는 글도 적지 않게 분포했다.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본받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첨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웠다. 또한 창의적인 관점으로 고사성어에 담긴 일반적인 해석의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신선한 관점을 제시하며 글을 완성한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놓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글을 쓰기도 하였다. 이럴 때는 관점이 다른 두 글을 나란히 보여주고 평가하도록 하고 토론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어떻게 쓸 것인가’와 발맞추어 ‘무엇을 쓸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고사성어가 품고 있는 서사와 인문적 가치는 글쓰기의 소재가 된다. 학습자는 이 특징을 활용하여 글쓰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글쓰기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과정이 사고하고 성찰하는 분야와 맞닿아 있으며, 글쓰기는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한 여러 분야와 통섭의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글쓰기교재편찬위원회(2016), “사회과학 글쓰기”, 경북대출판부
- 글쓰기교재편찬위원회(2016), “인문학 글쓰기”, 경북대출판부
- 김가연(2014),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사자성어 가르치기:고전소설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용재(2014), “四書에서 유래하는 成語에 대한 중·고교 漢文科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법”, 교육연구 60, 성신여대교육문제연구소
- 대동한문학회(2013), 『교양인을 위한 사자성어』
- 송선령(2012), “창의적 글쓰기 수업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우리말과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이기화(2014), “고사성어 속뜻 알기 교수·학습 방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이오덕(2004),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보리
- 황성근(2005), “대학 글쓰기 교육의 효과적 지도 방안”,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 황위주 등 편저(2010), “대학한문”, 보고서

※ 이 논문은 2018년 3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3월 28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2018년 4월 1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2018년 4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 초 록 ❖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방안 연구

이영환(세한대학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글쓰기 분야도 지속적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글쓰기 또는 문장 작법에 대한 강의가 대폭 늘어났으며, 새로운 교육 방법과 자료가 연구되고 있다.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를 아우를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고사성어를 활용한 글쓰기 연구는 학술 논문의 형태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런 주제의 연구는, 고사성어에 의한 유도 작문의 형태이기에 아이디어 생성 측면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고사성어를 현실에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이미 아이디어 생성 과정이다. 오히려 고사성어가 품고 있는 탄탄한 서사 구조와 오랜 시간을 통해 검증된 고전 인문적 가치는 글쓰기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학습자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글쓰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고사성어의 선택과 분석을 거쳐,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인생의 좌우명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글을 쓰는 과정이 사고하고 성찰하는 분야와 맞닿아 있으며, 글쓰기는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한 여러 학문 분야와 통섭의 작용을 한다.

〈주제어〉 고사성어, 인문학, 글쓰기, 교육, 통섭, 성찰

❖ Abstract ❖**Study of Writing training
with Idiom originated in an ancient event**

Lee, YoungHwan(Sehan University)

In trend which the humanities is more and more concerned, writing field is extend its territory. The lecture about writing or composition method, and new teaching method, reference are studying very impassionedly. Writing training with Idiom originated in an ancient event suggest to join together 'what to write' in situation of being inclined 'how to write'.

Idiom originated in an ancient event have a perfect narrative structure and the humanistic scarcity value, and they become the writing' material sufficiently. Student access to writing easily with this characteristic. And they can make opportunity to look back their life and to seek a new direction. They choice idiom and analyze to interpret and can find motto, and then express it with writing. Writing is adjacent with thinking and introspection. Writing is not limited to technical side, but make convergence of the studies.

〈Key Words〉 Idiom, Humanities, Writing, Training, Convergence, Introspection